



전북도는 지난 10월 18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23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충북 진천 소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친환경 이차전지산업 성장 '가속도'

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산업 육성 위한 간담회

전북도가 국내 우수 혁신연구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등 전북 미래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을 이끌어내는 등 탄탄한 토대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18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23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충북 진천 소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 연구진, 전북도 이차전지반도체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환경유해물질관리 중요성 대두에 따라 새만금 부지에 배터리 제조공정의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친환경 제조기반 구축 등이 안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험연구 분야에 기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협업을 나선 것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는 이차전지의 주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제조공정 시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장비와 모니터링으로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제조 성장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이차전지 제조기업의 품질고도화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시설로 전문 혁신연구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터리 전주기 연구 및 기술 지원, △유해물질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이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 및 소재, 셀, 모듈, 팩 대상 유해성 및 안전성 평가장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진천 본부의 공기환경센터, 배터리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를 방문해

성능평가, 신뢰성평가, 안전성평가의 시험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체계를 설계했다.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상시적 유해물질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 성장 기반을 확립해 지속성장 가능한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집적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서부권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 자제 요청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3일 오전 11시,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되는데, 서부권역이 23일 10시 79 $\mu\text{g}/\text{m}^3$, 11시 78 $\mu\text{g}/\text{m}^3$ 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고농도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점차 남동진하면서 농도가 높아져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밤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http://air.j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보·경보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구축 및 전북 특화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전북도가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용역기관의 연구용역 추진 계획 발표 후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및 전북자동차부품협회 신현태 회장,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이수근 회장 등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에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인 아인스가 공동으로 참여해 도내에 C·E·S(Commercial: 완주 상용차, Electric: 군산 전기차, Specialty: 김제 특장차) 트라이앵글 + 대체부품 산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 상용차와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및 대체부품 생산기반, 국내 유일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등 전북 자동차산업만의 특성 및 강점을 강화해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안정적인 미래차 부품 공급망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2억 5,000여만원의 용역비로 2025년 7월까지 진행된다.

도는 4개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등 하부구조와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분석·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형 국가사업 등 신규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으로, 용역 중간결과물이 나오는 내년 5월부터 각 부문별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과제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후보안, 28일까지 선호도 조사

오는 29일 공청회 통해 도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안 선정 예정

전북도는 다가오는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국민 선호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변화되는 전북의 이미지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담아낼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의 정체성과 특

별자치도로서의 미래 비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 7월 용역사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방향과 전략을 수립했다.

한편 전라북도도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 다양한 참여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

진한 바 있다.

사전 인식조사를 통해 기본 방향성을 설정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토론회, 공모전, 원탁회의 등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 및 속의 절차를 거쳐 이번 선호도 조사 후보안을 개발했다.

선호도 조사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온라인 링크 (https://www.jonbuk.go.kr/brand/index.jonbuk?menuCd=DOM_000001703002000000)를 통해 진행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에너지 홀닥터 사업' 완료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900세대에 대상으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는 에너지 홀닥터 사업을 지원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 홀닥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3만2,636세대에 19억여원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에너지 홀닥터 사업의 수혜 가구 만족도가 높은 만큼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